

<p>The attitude in our society to authority has certainly changed over the past 40 years or so, hasn't it? Back then respect for one's elders was expected, especially for parents, teachers and leaders (including political leaders). Not so today. The emphasis is upon "democratic independence" – the rights of the individual. Sadly, this philosophy has influenced many in our churches who are more concerned with their rights than with their individual roles and responsibilities. The whole idea of recognizing and submitting to "those who are over you" is foreign to them, partly I believe, because the principle of authority is fast disappearing from our culture. One of the critical factors touching life and growth in the church is the authority of its leaders. What kind of authority should church leaders exercise?</p>	<p>권위에 대한 우리 사회의 태도는 지난 40 년간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특히 부모나 교사 및 지도자 (정치 지도자 포함)와 같은 어른에 대한 존경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민주적 자주권", 즉 개인의 권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슬프게도, 이 철학은 자신의 역할 및 책임 보다 그들의 권리에 더 관심이 많은 우리 교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위에 있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복종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낯선 것으로, 이는 부분적으로 권위의 원칙이 우리 문화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삶과 성장에 관여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교회 지도자의 권위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권위를 행사해야 할까요?</p>
<p>There are basically two kinds of authority. The first comes from status or position. The managers of large companies exercise authority over those they employ by virtue of their position. An army officer rules because of the authority vested in him. Jesus spoke of this when he said, "You know that the rulers of the Gentiles lord it over them, and their high officials exercise authority over them" (Matthew 20: 25). This kind of authority may rule but it cannot command respect. It cannot own the hearts and minds of people, or produce within them a desire and willingness to submit. This only comes from the second kind of authority which is less obvious than the first. It has nothing to do with status or position, but has everything to do with the quality of the person exercising the authority.</p>	<p>기본적으로 권위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지위 또는 사회적 위치에서 옵니다. 대기업의 관리자들은 그들의 위치의 덕택으로 그들이 고용한 사람들에게 권위를 행사합니다. 육군 장교들은 그들에게 부여된 권위로 통치합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마태복음 20:25). 이런 종류의 권세는 통치할 수는 있겠지만, 존경심을 불러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소유하거나, 그들 안에 기꺼이 복종하고자 하는 욕구를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보다 덜 분명한 두 번째 종류의 권위로부터만 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지위나 사회적 위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의 자질과 관계가 있습니다.</p>
<p>Jesus had this kind of authority. He had no official position or status such as that held by the religious leaders of his day, but, Matthew tells us in his gospel "he taught as one who had authority, and not as their teachers of the law" (Matthew 7: 29). Jesus was both credible and authoritative because of the evident spiritual dimension of his life – here was someone who really knew God – and his grasp of truth. When one of the members of the Sanhedrin, Nicodemus, came to him at night, he called Jesus "Rabbi", saying, "We</p>	<p>예수님께는 이러한 형태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그러한 공식적인 위치나 사회적 지위는 없었지만,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서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태복음 7:29)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영적 차원 - 여기</p>

<p>know you are a teacher who has come from God” (John 3: 2)</p>	<p>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과 진리에 대한 이해 때문에 신뢰할 수 있고 권위적이었습니다. 유대 공회의 일원 중 하나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왔을 때, 그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며 말합니다, "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요한복음 3:2).</p>
<p>It is having a heart for God that in the final analysis sets Christian leaders apart. When God anointed David to be king over Israel he said it was because he had “sought out a man after his own heart” (1 Samuel 13: 14). It is of interest to note that the people eventually came to David and, in recognition of the hand of God on his life, asked him to be their king of Israel (2 Samuel 5: 3). As Christians and as the Church today, we need, and we should want, leaders to whom we can entrust our spiritual lives, and who will lead us into the will of God. It is not onerous to submit to the authority of leaders with vision who are clearly in touch with God and have an unqualified desire to be godly people.</p>	<p>최종 분석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따로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을 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사무엘상 13:14) 다윗을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결국에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청했다는 것은 흥미로운 점입니다 (사무엘하 5:3). 오늘날 그리스도 인으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생활을 위탁 할 수 있는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를 필요로 하며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하는 절대적 갈망을 가진 비전을 지닌 지도자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p>
<p>One of the keys to exercising authority in a local congregation is to have a life worth emulating. There is clear evidence in Scripture that those respected and responded to as leaders were evidently godly people with a servant heart and a vision for the church. In the context of the instruction in Hebrews 13 to obey our leaders, we are told to remember those “who spoke the word of God to you. Consider the outcome of their way of life and imitate their faith”. Peter in chapter 5 of his first letter emphasises the leader as a servant, shepherd and example, being responsible to God for those “entrusted to his care” (vv. 2-3).</p>	<p>지역 모임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열쇠 중 하나는 따라 할 가치가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존경 받고 응답 받는 사람들은 분명 섬기는 마음과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진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지도자에게 순종하라는 가르침이 담긴 히브리서 13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 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하나님 앞에 그"말은 자들"을 책임지는 종이자 목자, 그리고 본보기로서의 지도자를 강조합니다 (2-3 절).</p>
<p>There are basically three styles of church leadership: autocratic, democratic and theocratic. In the autocratic style, absolute rule and authority are vested in an individual or small group of people who tend to dictate to the congregation “the will of God”. There have been tragic consequences when this kind of power has been claimed by church leaders. It tends to concentrate the focus of the congregation on the leaders and there is great danger of</p>	<p>기본적으로 교회 리더십에는 세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독재, 민주주의, 그리고 신정(神政)주의. 독재 스타일에서는 절대 규칙 및 권위가 회중에게 "하나님의 뜻"을 지시 하는 경향이 있는 개인 또는 소 그룹에 부여됩니다. 이러한 종류의 힘이 교회 지도자에 의해 행사되었을 때 비극적인 결과가</p>

<p>losing sight of God and his purpose for his church, so that there is a failure to equip and develop people to fulfil their role in the body of Christ, the family of God. Almost inevitable, the autocratic style allows pride and arrogance to creep in.</p>	<p>있어왔습니다. 그것은 회중의 초점을 지도자에 집중 하는 경향이 있으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망각하는 큰 위험이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이자 하나님의 가족 내에서 그들이 맡은 역할을 다하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개발하는데 실패합니다. 독재 스타일에 자부심과 오만이 생겨나는 것은 거의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p>
<p>The democratic style of leadership places the emphasis on the right of all the people to have an equal say in the affairs of the church. One of the problems with this system is that the least spiritually mature member is assumed to have as much insight as those who are older and more mature believers. For this reason, the provisions governing the election of elders in the Presbyterian Church do not provide simply for a vote by the congregation amongst those nominated but require the Session to satisfy itself as to the qualifications and suitability for eldership of those who receive the voters' preference and also to decide whether the level of support given by the congregation is sufficient to confirm that God is indeed calling and setting apart that man as an elder for the congregation.</p>	<p>리더십의 민주적 스타일은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업무에 있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강조합니다. 이 시스템의 문제 중 하나는 영적으로 가장 성숙하지 않은 일원이 연장자인 보다 더 성숙한 신자와 같은 수준의 통찰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장로 교회에서 장로의 선거 관리 규정은 단순히 지명된 사람들 가운데 회중의 투표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회에서 유권자의 선호를 받은 사람들이 장로의 직분에 적합한지 그 자격 여부에 대해 만족해야 하며, 또한 회중의 지지 정도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회중의 장로로서 따로 구분하셨음을 확인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p>
<p>The Bible never advocates a democratic system of government for the church. The nation of Israel was quite clearly to be a theocracy in which God governed his people. In the context of New Testament teaching we could use the term "Christocracy". It is Jesus Christ who is the Lord of his church and to whose authority we submit. In this style of government, God through Christ governs his church, using those he has called, anointed and equipped as leaders. And those leaders, elders, are not primarily answerable to the congregation but to the Lord, the King and Head of the church. Since leaders are, as we have seen, models to those they lead, an imperative for effective leadership is submission to Christ's kingship. Christian leaders place themselves under the authority of Christ and his Word, exhibiting this truth in their own lives and ministry.</p>	<p>성경은 결코 교회에 대한 민주적 통치 시스템을 옹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신다는 신권 정치 국가를 지향했음은 매우 분명합니다. 신약의 가르침의 맥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정치 (Christocracy)"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교회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는 그분의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통치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통해 그의 교회를 다스리시며,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고 준비된 자들을 이용하십니다. 또한 그 지도자들과 장로들은 단순히 그 회중에게 주로 책임을 가질 뿐 아니라, 교회의 왕이요, 머리 되시는 주님께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펴 본 바대로, 지도자는 그들이 이끄는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하며, 효과적인 리더십의 필수요건은 그리스도의 왕권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지도자는 그리스도와 그 말씀의 권위 하에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과 사역을 통해 이 진리를 드러냅니다.</p>

<p>As today we begin the process of moving towards the election of new elders for our congregation, we need to be clear that a person doesn't become a leader simply by being voted into that position. Rather, we ought to be looking for those within our church who already show evidence of the anointing of God for leadership. These will be men with godly character, vision for the church, a love for people and gifts that enable them to equip others. In the final analysis, because it is God's church, we can only set apart for leadership those we believe God has already called and set apart.</p>	<p>오늘 우리가 우리 회중을 위한 새로운 장로 선출 절차를 시작함에 따라, 우리는 그 사람이 단지 투표에 의해 그 위치에 선출되어 리더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 내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리더의 자리에 기름 부으셨음이 이미 명확히 드러난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거룩한 성품과 교회에 대한 비전,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킬 수 있게 하는 은사를 갖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최종 분석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부르셨으며 따로 구분하셨다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만을 리더십의 위치에 구별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p>
<p>What does the New Testament have to say about elders? When Paul and Barnabas went on their return visit to the newly-established churches at Lystra, Iconium and Antioch, one of their first tasks was to appoint elders (Acts 14: 23). When Paul became aware that he would in all probability not be able to visit Ephesus again, it was the elders to whom he delivered his last charge and exhortation (Acts 20). When he wrote to Timothy, speaking of the responsibilities and qualifications of elders and deacons, he spoke of "the elders who direct the affairs of the church" (1 Timothy 5: 17). James told the sick to call the elders of the church to pray for them (James 5: 14). One cannot read the New Testament without seeing the prominent role played by elders.</p>	<p>신약에서는 장로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에서 새로 설립하는 교회에 다시 방문했을 때, 그들의 첫 번째 임무 중 하나가 장로를 임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4:23). 바울이 자신이 다시 에베소를 방문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장로들에게 마지막 임무를 맡기고 권고의 말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0). 바울이 장로와 집사의 책임과 자격에 관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을 때, 그는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17). 야고보는 아픈 사람들에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5:14). 장로들이 수행했던 중요한 역할을 보지 않고 신약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p>
<p>The idea of eldership was not new to the early church. In fact, we first read of elders in the Old Testament. Moses and Aaron called the elders together to inform them of the impending deliverance of God's people from Egypt (Exodus 3: 16). However, it was really after the exodus from Egypt and while the people of Israel were wandering in the wilderness that the representation and duties of elders called by God to attend to the spiritual welfare of his people was clearly established and specified. In Exodus 18: 8-12, it is the elders of Israel who share a worship feast with Jethro, the priest of Midian and father-in-law of Moses, in praise of the Lord who had saved his people from their slavery in Egypt. In vv. 13-26 of Exodus 18, Moses accepts the advice of Jethro to appoint God-fearing men as subsidiary judges to resolve disputes between the people. In Numbers 11, we</p>	<p>장로라는 개념은 초기 교회에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구약에서 먼저 장로들에 관해 접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장로들을 불러 모아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임박했음을 알립니다 (출애굽기 3:16). 그러나, 하나님 백성의 영적 행복을 돌보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로들의 대표권과 의무가 명확히 설립되고 명시된 것은 실제로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출애굽기 18:8-12 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미디안 제사장이자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와</p>

<p>see men called by God and set apart by him and bestowed with the blessing of the Holy Spirit that they might exercise spiritual oversight and care of God’s people, Israel. Moses was commanded to select 70 elders from among those who were already leaders within the tribes for this important role.</p>	<p>함께 성찬을 나누는 것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8 장 13-26 절에서, 모세는 사람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을 돕기 위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독실한 사람들을 임명하라는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민수기 11 장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택된 사람들이 성령의 축복을 받아 영적 통찰력을 행사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모세는 이 중요한 역할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가운데 70 명의 장로들을 선정하라고 명 받았습니니다.</p>
<p>These 70 were probably those who were at Mount Sinai with Moses and who, in Exodus 24, were involved in the making of the covenant and had the great privilege of going up the mountain with Moses and Aaron to worship the God of Israel.</p>	<p>이 70 명은 아마도 시내산에 모세와 함께 있었으며, 출애굽기 24 장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는데 관여했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세와 아론과 함께 산을 오르는 큰 특권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p>
<p>In the Gospels there are frequent references to elders. It is worthy of note that Jesus reserved some of his strongest condemnation for those who were elders of Israel. Indeed, it was the Sanhedrin, the Council of elders, that led the opposition to Jesus and ultimately engineered his crucifixion. In spite of the fact that many of the Jewish elders had become so corrupt, the early church adopted the concept of elders but with <u>very</u> specific instructions as to their qualifications and role.</p>	<p>복음서에는 장로들에 관한 언급이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장로 된 자들에게 가장 강도 높은 비난을 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실제로, 예수의 반대편에서 궁극적으로 그의 십자가 죽음을 이끌었던 것은 산헤드린과 장로회였습니다. 많은 유대인 장로 들이 타락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초기 교회는 장로라는 개념을 채택했지만 그들의 자격과 역할에 관해서는 <u>매우</u> 구체적인 지침을 정했습니다.</p>
<p>There are two words constantly used in the New Testament to describe those called to be elders. The first, presbuteros, is translated “elder”. The second word, episkopos, means “bishop” or “overseer”. There are some who claim that these words refer to two different levels of leadership, but if you read the various passages where both words are used, it is clear that they are used <u>interchangeably</u> to describe the same group of people. For example in Acts 20: 17 Paul sent for the elders (presbuteros) of the church in Ephesus and speaking to the same men he declared, “The Holy Spirit has made you overseers (episkopos)”. That is he uses the 2 terms to describe the same men, the elders of the Ephesian church.</p>	<p>신약에서 장로로 불리는 사람들을 묘사하는데 지속적으로 사용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presbuteros라는 단어는 "장로"로 번역됩니다. 두 번째 단어, episkopos는 "주교" 또는 "감독관"을 의미합니다. 혹자는 이러한 단어들 이 두 가지 수준의 다른 리더십을 지칭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된 다양한 구절들을 읽어보면, 이 단어들 이 같은 그룹의 사람들을 묘사하기 위해 <u>호환적으로</u> 사용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20:17 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presbuteros)을 불러, 같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episkopos)"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 같은 사람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묘사하는데 이 두 단어를 모두 사용합니다.</p>
<p>No doubt one reason why these two words were used was because of the cultural make-up of the early church. The concept of an “elder” came from the Jews and the idea of a</p>	<p>이 두 단어가 사용된 이유 중 하나가 초기 교회의 문화적 형성 때문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장로"라는 개념은</p>

<p>“bishop” from the Greeks, who used the word to describe an official or overseer. It was quite natural to adopt these two words and use them to designate pastoral leadership in the church.</p>	<p>유대인으로부터 온 것이며 "주교"라는 개념은 관리나 감독자를 묘사하는데 이 단어를 사용했던 헬라인에게서 왔습니다. 이 두 단어를 채택해 교회의 목회 리더십을 표시하는데 사용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p>
<p>The word presbuteros emphasises the character of the elder, conveying the idea of maturity and dignity. One would expect elders to be models of godliness, commanding respect from those they lead. The word episkopos emphasises their function: they superintend, guard and oversee the church. The two words together beautifully communicate the ideal that God had in mind for those who were to “shepherd the flock of God”. There would have been ready recognition of their role by both Jewish and Gentile believers.</p>	<p>presbuteros 라는 단어는 장로의 성격을 강조하는 것으로, 성숙과 존엄성이라는 개념을 전달합니다. 사람들은 장로들이 독실함의 표본으로, 그들이 이끄는 사람으로부터 존경심을 불러일으킬 것을 기대합니다. episkopos 라는 단어는 그 역할을 강조합니다: 장로들은 교회를 관리하고 지키며 감독합니다. 두 단어가 함께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이상적인 것을 전달합니다.</p>
<p>How does the ideal of eldership fit with the traditional role of “the minister” or “pastor”? The word “pastor” in the New Testament finds its origin in the Old Testament figure of the shepherd who tended and cared for the flock. John 10 describes Jesus as the Good Shepherd. 1 Peter 5: 1-4 implies that elders are God’s undershepherds, who feed, lead, care for and protect God’s people. The pastor’s shepherding function involves equipping God’s people for the work of ministry and the process of maturity (Ephesians 4: 11-16), Significantly, the idea of pastoring in the New Testament is always in the context of <u>a group of elders</u>, never as an individual with the sole responsibility for the church. This provides a healthy framework for mutual accountability, support and encouragement. It provides a context in which the principles of love, fellowship and submission to one another can be modelled to those being led, the congregation.</p>	<p>이러한 이상적인 장로 직이 전통적인 "목사" 혹은 "목자"의 역할에 어떻게 부합할까요? 신약의 "목자"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양떼를 돌보고 보살피던 양치기에게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 장은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14 은 장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고, 인도하며, 보살피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수하 목자임을 시사합니다. 목사의 양치기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하여 사역에 힘쓰게 하며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에베소서 4:11-16). 신약에서 목회 사역에 대한 개념은 항상 장로 그룹의 맥락에서 이해되며, 전적으로 교회에 대한 책임을 맡은 한 개인으로서가 절대 아닙니다. 이는 상호 책임과 지원 및 격려를 대한 건강한 틀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랑과 친교, 상호 복종의 원칙이 인도함을 받는 회중에게 모델이 될 수 있다는 배경을 제공 합니다.</p>
<p>From a purely practical point of view, it is obviously much better to share the load of pastoral care. When the responsibility is centred on just one significant individual, “the minister”, the sheer volume of work, and the expectations and demands of a congregation on the pastor and his time, may in the end lead to all kinds of problems, both in the church and for the pastor and his family. Coupled with this is the fact that, in reality, no one person has all the gifts and abilities necessary to do all the work. It is certainly much safer and wiser, and more biblical, to have</p>	<p>순전히 실용적인 관점에서 볼 때, 목회의 짐을 나누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책임이 한 명의 중요한 개인, "목사"에게 집중되어있을 때, 엄청난 일의 양과 목사와 그의 시간에 대한 회중의 기대 및 요구는 결국 교회 내에서 그리고 목사와 그의 가족에게 온갖 종류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실에서 그 어느 누구도 모든 일을 감당할 만한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명백한</p>

<p>the checks and balances of others in seeking to know the mind of God. This was certainly evident in the affirmation of, and support for, the call of Paul and Barnabas to evangelise the Gentiles in Acts 13. And so in the Presbyterian Church the full-time pastor or teaching elder is not above the other elders but is an elder among elders, one among equals and together they comprise the Session.</p>	<p>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있어 다른 사람들의 견제와 균형을 갖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현명하며, 보다 성경적입니다. 이는 사도행전 13 장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가 부르심을 입은 것을 확인하고 지지하는 데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따라서 장로 교회에서 전임 목사 또는 가르침을 담당하는 장로가 다른 장로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 중 한 명이며,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 중 하나로, 그들은 함께 당회를 구성합니다.</p>
<p>In any really functioning Session three things should be constantly evident: the godliness of elders who are controlled and motivated by their walk with God, the recognition of their gifts and calling, and an evident attitude of servanthood which is seen in the humble acceptance of and submission to one another. Within any group of elders there will be a diversity of function. Paul in 1Timothy 5: 17 clearly implied this when he said, "The elders who direct the affairs of the church well are worthy of double honour, especially those whose work is preaching and teaching". The key is in the recognition of the gifts and abilities of each elder. Whilst each should be "able to teach" (as Paul puts it in 1 Timothy 3: 2), not all will have gifts in preaching and expounding God's Word, but all will have the ability to instruct in sound doctrine and to refute error (Titus 1: 9). Whatever their gifts, each should recognise that their primary goal is to edify and equip those they lead, thus enabling them to grow in their faith and contribute to the body of Christ.</p>	<p>그 기능을 잘 수행하는 당회라면 어느 곳이든 세 가지가 항상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으로 통제되고 동기부여를 받는 장로들의 독실함, 그들의 은사와 부르심에 대한 인식, 그리고 서로에 대한 겸허한 수용과 복종에서 명백히 드러나는 섬기는 자세. 어떤 장로 그룹 내에도 다양한 기능이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17 에서 바울은 다음의 말로 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기서 핵심은 각 장로의 은사와 능력을 인식하는 데에 있습니다. 각각의 장로가 "가르치기를 잘하여"야 하지만 (바울이 디모데전서 3:2 에서 말하고 있듯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세히 설명하는데 은사를 가진 것은 아니며, 그럼에도 모두는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실수를 책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디도서 1:9). 그들의 은사가 무엇이든, 각 장로는 그들의 최우선 목표가 그들이 인도하는 자들의 의식을 고양시키고 준비시켜, 그들의 믿음이 장성하여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p>
<p>In the final analysis, elders' activities will be determined by their gifts, abilities and experience. However, their primary role is that of spiritual oversight. Apart from being overseers and shepherds, they are to "direct the affairs of the church well" (1 Timothy 5: 17) and exercise authority over the church (Hebrews 13: 17). This doesn't mean lording it over people, but in recognition of their role as elders the congregation is to submit to their leadership.</p>	<p>최종 분석에서 장로들의 활동은 그들의 은사와, 능력 및 경험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요 역할은 영적 통찰력입니다. 감독자 및 양치기의 역할 외에도, 그들은 "교회를 잘 다스리고" (디모데전서 5:17) 교회에 대하여 권위를 행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17). 이는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로서의 그들의</p>

	<p>역할을 인식하고 회중이 그들의 리더십에 복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p>
<p>True Christian leadership is impossible outside of the context of living and teaching the truths of Scripture. The responsibility of the elders is to ensure that the Word of God is faithfully preached (and thoroughly preached “the whole counsel of God”) and that sound doctrine is taught in the life of the congregation – from the pulpit, in small group Bible studies, in the Sunday School and through one-to-one discipling. It is the role of the elders to make sure that those in their care have sufficient grasp of biblical truth to enable them to both live and enjoy the Christian life and to effectively contribute to the body of Christ. You cannot shepherd the flock of God without feeding them and seeking to develop their spiritual health. Elders should be out among the people listening to their joys and concerns, loving and encouraging them, giving counsel and pastoral care, praying for their flock and helping them to deal with the issues and circumstances of life.</p>	<p>진정한 기독교 리더십은 성경의 진리를 생활 속에 실천하고 가르치는 맥락 밖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장로들의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실하게 전파되고 (또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철저히 설교되며) 그 바른 교훈이 회중의 삶 가운데 - 설교 단에서, 소그룹 성경 공부에서, 주일 학교에서 그리고 일대일 제자 양육을 통해 가르쳐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보는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크리스천의 삶을 살고 즐기며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로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양 떼를 먹이고 그들의 영적 건강을 개발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양 떼를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장로들은 사람들 가운데 섞여 그들의 기쁨 및 관심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며, 조언과 목회적 보살핌을 주고, 그들의 양 떼를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삶의 여러 문제와 상황들을 다루는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p>
<p>Eldership is the privilege and responsibility of being shepherds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which he purchased with his own blood. May the Lord call and raise up in our midst elders who will keep watch over themselves – their own spiritual life – and sacrificially and faithfully keep watch over all God’s flock in this church – to his glory and for the advancement of his kingdom. <u>Amen</u></p>	<p>장로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분의 보혈로 산 그 분의 교회의 목자가 되는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왕국의 발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지켜보고 - 그들 자신의 영적 생활- 이 교회의 하나님의 양 떼 모두를 헌신적이고 충실하게 보살필 장로들을 우리 가운데 부르시고 세우시기를 기원합니다. <u>아멘</u></p>